

# 남여대협 대표자 회의

★ 일시 : 불국암 반미항전의 날 5월 10일 2시

★ 장소 : 전남대 후여학생회

술가쁘게 살았던 우리도 이제 너무도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민중들의 피와 땀을 5월!!

각종 각층의 선진적 반대세력을 뒀으며 곳곳에서 80년 5월을 재연할 것입니다. 자동차 투쟁, 남북 정산회담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정세, 우리들의 조직의 투쟁선포의 장울명 석 등 한역 광주에서부터 이 땅의 차추를 복습 바쳐 외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대표자님들의 고민을 역시나 대학의 일꾼들과 사업과 투쟁이 혼합된 투쟁의 고민을 갖게 됩니다. 대표자님들의 고민을 모아 반미투쟁의 선봉에 여학일꾼이 서겠습니다.

# 이제

### 1. 대학총학

- 남여대협 총회
- 전국 공동 공시내발 수요집회
- 공판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
- 통능화 진행정도와의 총화
- 조직·사상생활
- 대학의 이후 계획 (일정)

### 2. 5.6월 사업계획서 해설 및 의결 동선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위에서 투쟁 및 고민을 제출하시던 더욱더 깊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3. 출범식에 관한 논의

기획안을 기본으로 논의 결의했으면 합니다. (동선상)

### 4. 기타안건

대학 의견 수

\* 추신 : 2대 회장 기념촬영 건립사업 결의서점 지침  
→ 2대 5차원

오실의 말 자주의 새바람

13기 광/주/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5차원 여학일꾼 ~~신상 득재~~ 건립사업 ~~의결~~ 오실의 말 자주의 새바람 ~~가~~  
잘하자!

##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3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출범 선언문

2천년 새로운 세기 우리겨레의 희망은 어느 민족보다 큰 것이다.

1900년대는 우리 민족이 외세와 그 주구들에 의해 나라를 잃고 식민과 분단의 아픔의 세기를 지냈다. 20세기 초 강도 일제의 식민통치에 온갖 고통과 수난을 당해온 우리민족은 3천만 동포의 자주독립 항일의지와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항일투사들의 피값으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국 반도 남단에 또다시 해방군을 가장한 미제 점령군이 조국강토를 둘로 나누어 그 이남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수 천년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민족은 허리잘린 분단민족으로, 미제에 의한 식민지 망국노로 전락되어 반백년을 살아오고 있다.

이 치욕의 역사에서 우리 여성민중들의 삶은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더욱 처절한 착취의 역사였다. 일제에 의해 조선의 수 천에 달하는 처녀들이 천황의 성노리개로 끌려가서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한을 풀지 못한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명 일제치하의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강제연행, 강간, 고문, 학살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잔악한 국제적 범죄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말살을 기도하고, 남성중심의 권력체제로 천황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민족의 문제, 계급의 문제, 인종의 문제, 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합된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여성민중들의 삶은 또 어떠했는가  
해방이후 이땅을 강점한 미군에 의해 쉽없이 자행되고 있는 잔인무도한 살인행각들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올해만 들어서도 우리땅인 이태원에서 주한미군의 변태적 성행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김성희씨, 새파란 나이의 미군놈에게 살해당한 66세의 할머니 서정만씨. 이렇듯 주한미군은 한국여성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인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의 역사는 바로 우리 민중의 고통이자, 여성에게는 이중착취의 고통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에 의한 우리 여성들의 삶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곳은 비단 사회 뿐만이 아니다. 대학에서도 자본의 논리속에서 성이 왜곡되어 표현되고, 여대생의 자주적인 삶을 가로막는 온갖 성폭력, 성차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혹한 여성의 삶이 유린되는 이땅 정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민족의 여성이 이토록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와 억압의 삶을 살아가도록 앞장서는 것이 바로 김대중정권이 아닌가. 대안없는 여성부 신설을 운운하며 여성의 인권이 상충되었느니 하며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한 분단을 영구화하는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겠다고 떠벌이고, 군사산점문제로 여성과 남성의 대결을 조장할뿐이다. 여성문제의 근본해결 방법인 통일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자신의 치적쌓기에 바쁘고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족대결책을 벌이며 전쟁연습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이 일본에 의해 성노리개가 되었어도, 미군에 의해 개돼지처럼 살해되어도 뭐라 말한마디 못하는 사대매국 정권일뿐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우리 여성들은 결코 앉아서 울지않은 않았다. 지난 세기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삶은 제국주의에 의해 유입된 울지 못한 성문화들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 여성민중들 또한 조국의 자주권과 여성민중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 일떠서서 싸워왔다. 여성에게 겹쳐워진 착취와 억압을 깨부수는 투쟁의 역사였다. 항일 투쟁시기 여성전사들이 그러했고, 조국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주한 미군 철거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 5만 여학우의 자주적인 삶을 가로막고 2천만 여성민중의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새 세기 조국의 식민의 역사를 끝장내고 여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투쟁을 5만 여학우와 10만 청춘이 결의하며 13기 남녀대협의 출범을 선언한다.

**2천만 여성민중을 유린하는 집단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로 민족자주 쟁취하자!**  
**제국주의에 의한 퇴폐향락문화 반대한다. 학원내 성폭력 근절로 올바른 성문화 정착시키자**  
**여성민중 생존권 보장않는 김대중정권 퇴진시키자!**  
**살인집단 주한미군 영구주둔 운운하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범국민 반미항전의 해 5월 14일**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3기 광/주/전/남/지/역/여/대/생/ 대/표/자/협/의/회**